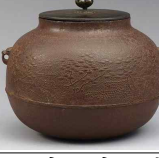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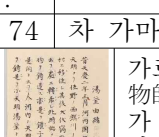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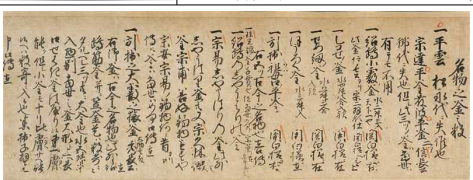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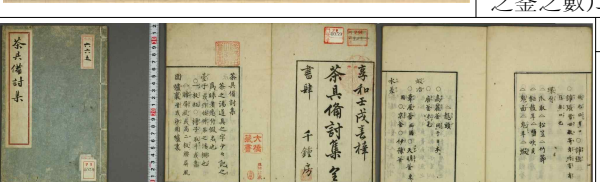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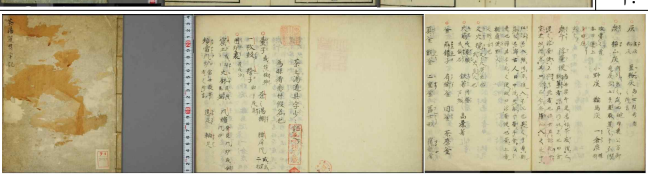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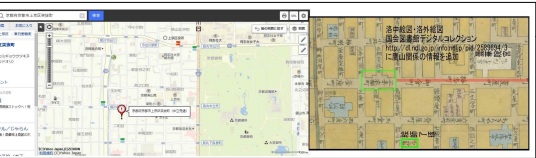
MIHO MUSEUM 미호뮤지엄, 2016년 여름 특별전 - 차 가마 술의 아름다움, 2016.6.4(토)-7.31(일)			
일본에서 최초로 만든 술은 나라시대부터 사용되었다. 물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차 문화의 수입과 더불어 차 가마 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었다. 무로마치 때는 앉아서 차 도구를 감상하기 시작했고, 무로마치 때 센리큐(千利休, 1522.-1591.4.21)는 차도를 정리하여 차도구가 형식화되었다.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리큐를 비롯하여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최고급 차 가마 술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차 가마 술이 지닌 아름다움과 이것들을 만들어서 전해온 일본 차 가마 장인들의 솜씨와 심미안을 보다 가까이에서 엿보고자 한다.			
I 차 가마술 이전(茶の湯釜以前) h(높이):26.1, d(뚜껑 지름):23.2, (몸통 지름)			
1	녹유 날개 가마 술(綠釉羽釜),興福寺 一乗院 출토, 8C.	2	녹유 가마술 이동식 아궁이(綠釉釜火舎), 8-9C.
	h:13.2, d:15.5, 나라문화재연구소. 차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나라 말로 보인다. 술 날개 위보다 아래가 긴 것은 불에 가깝게 닿기 위해서이다. 이동식 아궁이 조각도 더불어 나온 것으로 보아 두 가지가 더불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h:26.1, d:23.2, 오야마자키초(大山崎町)역사자료관. 일상생활에 쓰인 것이 아니고 차물을 끓이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교토 오야마자키에 있던 산성국부(山城國府)는 861년 이후 생겼다. 헤이안 때에는 사가(嵯峨)천황의 가야리큐(河陽離宮)가 있었다.
3	녹유 가마술이동식아궁이, 나가오카교(長岡京)출토 8C.	4	쇠 세 다리 술(鐵三足釜), 12C. 도쿄 국립박물관
	h:24.0, d:14.5, 교토시 고고자료관, 나가오카교 동쪽 교토 후시미쿠 하즈카시(京都伏見区羽束師)에서 나온 도기 가마술과 이동식 아궁이이다. 아궁이 몸통에 세로로 9 곳이 뚫려있다. 바람을 통하게 하여 불이 잘 타도록 만든 것이다. 엷은 담황색 바탕에 녹색 유약이 발라져 있다.		h:30.08 d:17.6, 일본에 있는 쇠 세 다리 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존사 절에 있는 대만야경 지옥 그림에도 나온다. 중세 일상생활이나 종교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둥근 몸통 위쪽에 날개가 수평으로 달려있고, 아래에 붙은 세 다리는 짐승 다리 모습이다.
5	쇠 냄비(鐵鍋), 12C. 柳之御所遺跡出土, 岩手県	6	쇠 가마술(鐵湯釜) 1198년, 和歌山,熊野本宮大社
	h:16.5, d:33.6, 쇠 냄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헤이안 때 그려진 그림 가운데에도 냄비가 보이기도 한다. 바닥에서 주둥이를 향해서 밖으로 넓어진 모습이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고, 단순한 생김새이다.		h:76.0, d:85.0, 도다이지 절 가마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 된 것이다 물을 끓여서 대나무 가지에 적셔서 뿌리는 유다치(湯立) 행사에 사용된 것이다. 몸통에 세 줄이 둘러쳐져 있다. 성분 검사 결과가 가마쿠라 대불과 같다.
7 젠교보 두루마리 그림(善教房繪卷画)/詞書 伝後光厳院 (1338-1374)			
			
젠교보 두루마리 그림(善教房繪卷画)은 젠교보라는 스님이 염불을 권하며 정토를 가르치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그림 속 인물 옆에 말하는 내용을 쓰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곳에 그려진 부엌 모습 속에 직사각형 이로리 화로나 고양이 세 다리 술이나 달걀이 달린 냄비가 세 다리를 지니고 있다. 鎌倉時代(南北朝) 14世紀. 28.0×300.4 http://sma-collection.suntory.co.jp/detail.php , 산토리 뮤지엄			
II 들어가기, 아시야(芦屋), 덴묘(天明), 교가마(京釜) 술 명품			
8	신나라 가마술(真形釜), 아시야(芦屋),14C.京都・相国寺	9	물가 소나무(浜松図真形釜).芦屋,15C(室町),文化庁
	h:20.0, d:19.4, 30.0, 구멍: 도깨비무늬, 바탕에 무늬가 없지만 아시야 가마술의 특징인 고운 결모습과 신나라 형의 생김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입은 두껍게 만들어져 있고, 입에서 어깨에 이르는 곡감한 곡선이 당당한 도깨비 구멍으로 이어져 있다. 비록 날개는 없지만 아시야 신나라 형 가운데서도 오래되었다.		h:19.2, d:14.2, 24.2, 구멍: 도깨비무늬, 장어 겹겹질처럼 겹겹 빛나는 표면과 강조된 입은 아시야 가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부드러운 어깨와 부풀어 오른 몸통이 조화를 이룬다. 겉에 그려진 굵은 소나무가 겹쳐져 있고, 모래사장이 섬세하게 나타나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몸통 아래에 자리잡은 고리가 당당하다.
10	싸라기 단풍 사슴무늬 가마술(霰地楓鹿図真形釜),	11	단풍 닭무늬 가마술(楓流水鶏図真形釜,芦屋, 室町, 福岡
	芦屋,15C(室町)京都,細見美術館,h:19.7, d:14.8, 25.9, 구멍: 도깨비무늬, 끝이 둥글게 마무리된 싸라기 무늬를 정렬하여 단풍나무와 가법계 뒤로는 사슴 세 마리를 나타냈다. 단풍이나 사슴이 곱게 새겨져 있어 정감이 넘친다. 뒤쪽에는 큰 나무 줄기 뒤로 사슴 두 마리가 어울려 놀고 있다.		九州国立博物館, h:20.6, d:18.2, 32.1, 구멍: 아마츠라 괴물. 아시야 가마술 가운데 큰 크기이다. 몸통 크기에 걸맞게 독특한 표정의 아마츠라(安摩摩) 고리가 달려있다. 목에서 어깨까지는 거칠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시야 가마의 특징인 장어 겹겹질처럼 반짝인다. 정면에는 굵은 줄기를 중심으로 싸라기 눈 무늬로 물가와 물 위에 흩어지는 단풍, 뒤쪽에 왼쪽 닭은 목을 세워 날개를 펴고 있고, 다른 쪽 닭은 위협적이다.
12	고쿠라쿠리츠지절가마술(極楽律寺尾垂釜),天明,1253년,	13	세메히모가마 술(責紐釜),天明, 16C(室町)
	大阪市立美術館, h:17.5, d:15.0, 26.8. 구멍: 도깨비무늬, 고쿠라쿠리츠지(極楽律寺) 절은 가마쿠라에 있는 율종 사원이다. 목에 새겨진 글씨로 만든 곳과 해, 가지고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덴묘 가마술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입이 수직으로 올라간 시루 입(고시킴식,瓶口)이다. 어깨가 넓게 벌어져 있고, 부드럽다. 귀면은 뒤에 붙었다. 취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h:17.8, d:10.8, 26.2, 구멍: 도깨비무늬, 입이 낮고 입에 이어서 주사위 모양 고리가 달려있다. 세메히모는 귀족들에게 차를 올릴 때 이 고리 구멍에 끈으로 묶어서 봉인했다는 뜻이다. 입에서 어깨로 둥근 호를 그리고 단정하게 마무리되었다. 어깨 부근에는 나무껍질 같은 무늬가 있다. 오사카 고노이케(鴻池), 마스다(増田,1852-1903)로 전해졌다.
14	아미다도 가마 술(阿弥陀堂釜) 16-17C.(桃山)	15	싸라기소나무무늬가마술(霰地松図真形釜,芦屋,15C.(室町)
	h:21.0, d:14.2, 27.2, 구멍: 도깨비무늬, 아미다도 가마술은 하카타 상인 가미야(神谷宗湛,1551-1635)가 쓴 차회기 중담일기(宗湛日記)에 나온다. 센리큐(千利休1522-91)가 요지로(与次郎)에게 주문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 가마 술은 단정하고 벌어진 어깨에서 아래까지 곧게 뻗어있다. 고리가 어깨 가장자리에 달려있다. 일부러 거칠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센리큐가 추구했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h:20.3, d:15.6, 구멍: 도깨비무늬, 몸통 한 쪽에 가지를 뻗힌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입에서 날개까지 온 몸통에 싸라기 무늬가 있다. 가지에서 뻗힌 소나무 잎이 둥근 방사상으로 그려져 있다. 소나무 잎은 온 몸통과 입에도 그려져 있다. 단정한 싸라기 무늬와 잘 그려진 소나무가 서로 상승효과를 내며 풍부한 장식성을 보여 주고 있다. 술을 담은 상자에 술 이름과 소장자 마스나가(松永弾正僧) 이름이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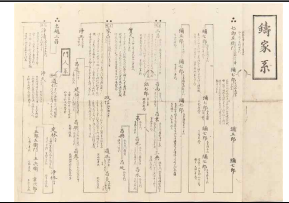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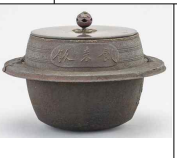
	16 쇠 풍로(鐵風爐) 1593년(桃山時代, 文祿二年, 東京国立博物館) h:28.8, d:28.8, 40.0, 구멍: 봉황무늬, 방 안에서 풍로 위에 가마솥을 얹어서 차 다릴 물을 끓였다. 1351년 나온 모귀회사(慕歸繪詞)에 이런 기록이 있다. 이 쇠풍로는 겉에 새겨진 글씨로 보아 만든 해와 사용된 곳을 알 수 있다. 교토 묘신지(妙心寺) 고바이인(衡梅院) 절에서 사용되었다. 수직으로 올라간 입에는 칠요문(七曜文)과 나무 가지 모양이 투조로 새겨져 있다. 칠요문은 불두칠성을 나타내는 일곱 별이라는 말과 음양오행의 일곱 가지(해, 달, 나무, 불, 흙, 쇠, 물)라는 말이 있다. 모두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술적인 상징성을 나타낸다. 어깨에는 봉황무늬 고리가 있고 몸통에는 이중 하트형으로 파여 있다. 다리는 몸에서 이어진 세 다리가 있다.
III 아시아 가마솥 -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과 싸라기무늬(가장 오래된 기록은 1517년, 15번 명문에 의함)	
	17 향로 가마솥(香爐釜), 1506년(室町, 永正三年), 福岡市美術館 h:16.7, d:16.2, 27.8, 구멍: 삼각무늬, 원래 1806년 아시아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상명사(常明寺) 절에 향로로 바친 것이다. 고리 구멍을 보충하여 가마로 만들었다. 입 부근에는 두 줄 사이에 바람개비 무늬가 새겨져 있다. 몸통 아래쪽에는 두 줄 사이에 구슬무늬가 둘러쳐져 있다. 차 가마솥으로는 독특한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8 하가마솥(羽釜) 芦屋, 1505년(室町) 山口・龍文寺 h:42.0, d:30.0, 48.5, 구멍: 아마츠라(安摩摩) 괴물 무늬, 솥에 새겨진 명문으로 보아 1505년 만들어졌다. 도씨(陶氏) 8대 주지인 다다양흥방(多多良興房, 1475-1539)이 용문사에 바쳤다. 원래 주방용이었지만 차 가마 솥으로 쓰였다. 신나리형으로 어깨가 강하게 벌어져 있고, 전체가 둥근 모습이다. 도씨는 대내써 중심으로 아시아 차 가마 솥을 교토에 있는 장군 측근에게 보냈다.
	19 넓은입가마솥(果座広口釜), 1534년(室町), 東京国博 h:19.0, d:20.6, 28.2, 구멍: 아마츠라, 1534년 아시아의 장인 히로지(廣次)가 만든 향로이다. 무로마치 때 향로로 만든 것을 가마솥으로 바꾼 것은 에도시대 이다. 넓은 입을 둘러싸고 누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공과 같다. 겉에 녹이 슬어 낡았지만 녹 사이로 아시아 가마솥 특유의 반짝이는 장어 비늘 겉모습이 보인다.
	20 11면관음그림가마솥(十一面觀音図香爐釜), 1534(室町), 細見 h:20.3, d:17.6, 25.2, 구멍: 도깨비무늬, 1534년 아시아의 장인 오에센슈(大江宣秀)가 만든 향로이다. 그는 21, 22 번 작품 따위를 만들었다. 처음 향로로 만든 것을 가마솥으로 바꾸었다.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십일면관음을 기리는 곳에 바쳤다. 몸통 가운데 광배가 있고 홀을 든 관음 모습이 새겨져 있다. 입 가장자리와 한 줄 선 사이에 연속 번개무늬가 있다.
	21 싸라기 술매화 가마솥(霰地松梅図真形釜), 1517년(室町), h:20.3, d:17.6, 25.2, 구멍: 도깨비무늬, 東京, 根津美術館 아시아의 장인 오에센슈(大江宣秀)가 만들어서 교야 산보당원 절에 시주했다는 명문이 새겨졌다. 아시아 가마솥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어깨가 강하게 벌어져 있고, 어깨에서 날개까지 약간 부풀려 있다. 고리는 어깨보다 조금 낮다. 몸통에 싸라기 무늬가 돌아있고 네 곳에 창을 만들어 명문과 물가에 사는 술과 매화나무를 그려놓았다.
	22 와니구치(鰐口) 악기, 1534년(室町), 山口, 今八幡宮, 면 지름, d:85.8, 두께:30.0, 17.6, 25, 연꽃잎이 새겨진 당좌(撞座), 두 줄로 나누어 바깥쪽에는 위 가운데 보주와 물결, 둘레에는 구름을 정교하게 새겨놓았다. 등에는 합장한 비천과 연화를 지닌 비천이 돌을 새겨져 있다. 위쪽 좌우에 귀를 지닌 용두가 달려있다. 허를 감아올렸고, 머리위에는 털이 감겨있다.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 아시아 장인의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오에센슈(大江宣秀)가 만들었다.
	23 비늘무늬 가마솥(鱗文真形釜), 芦屋, 1494년(室町) h:16.8, d:15.2, 26.4, 구멍: 도깨비무늬, 연호가 적힌 아시아 가마솥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이 때 아시아 가마가 가장 번성하여 긴키 지역에도 소개되었다. 싸라기로 삼각형을 새기고 이어서 역삼각형이 반복하여 이어져 비늘무늬를 이루고 있다. 고리 구멍은 크고 깊이 새겨져 있고, 코가 높다. 입은 수직으로 올라가 있고, 어깨에서 아래로 약간 벌어져 있다. 지금은 날개가 없지만 처음에는 있었다.
	24 귀갑무늬 가마솥(龜甲鱗文真形釜) 芦屋 15C.(室町), 細見美 h:20.6, d:14.4, 25.5, 구멍: 거북이 등, 아시아 가마솥으로 드물게 거북이 등 고리이다. 고리 구멍 거북이 등에는 이중 육각형 모습이 새겨져 있다. 몸통에는 눈 무늬 안에 두고 둘레에 두 줄로 육각형을 두른 거북이 등 무늬가 새겨져 있다. 거북이 등 무늬는 어깨에서 몸통 아래까지 크기를 달리하면서 가득 차있다. 만든 사람의 꼼꼼한 성결과 올곧은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25 거북등무늬가마솥(龜甲鱗文真形釜), 아시아(芦屋), 15C. h:20.2, d:13.7, 25.2, 구멍: 거북이무늬, 무늬와 모습이 24번과 거의 같다. 크기가 조금 다르다. 거북이무늬는 다카무라신사(高倉神社)의 비사문천왕상(毘沙門天王象)과 비슷하다. 이어진 거북이무늬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때 일본 청동 거울(和鏡) 무늬에도 나오지만 안에 눈무늬를 넣은 것이 다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26 우바구치 우박 가마(姥口雹釜), 芦屋, 15C. h:17.0, d:12.0, 29.1, 구멍: 도깨비무늬, 센리큐의 제자 우에야마(上山宗一) 쓴 명물지부지수(名物之釜之數)에 나오는 가마솥 가운데 단 하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이다. 바닥을 수리했지만 원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입이 도넛 모습이고 안으로 들어가 있다. 입과 날개에 우박 모습이 새겨져 있다. 입 부근에서는 우박 알갱이가 작다. 도요토미(豊臣秀吉)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7 싸라기무늬 가마솥(霰地真形釜), 芦屋 15C.(室町), 重 h:20.2, d:15.2, 25.5, 구멍: 도깨비무늬, 입에서 날개까지 싸라기 무늬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다. 입에서 어깨에 이르는 선이 강하다. 고리 구멍이 비교적 크다. 위풍당당한 모습에서 아시아 가마솥의 무게가 느껴진다. 수리한 흔적이 없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28 싸라기무늬 가마솥(霰地真形釜) 芦屋, 15C.(室町) 東, 五島美 h:18.2, d:15.2, 26.2, 구멍: 도깨비무늬, 비교적 크고 단정한 싸라기 무늬가 전체에 잘 자리 잡고 있다. 어깨 위로 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그 사이에 염주무늬(累座文)가 새겨져 있다. 입이 몸에서 강하게 올라가 있고, 고리 구멍이 크다. 아시아에서 만든 가마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9 싸라기무늬 가마솥(霰地真形釜), 芦屋 15C.(室町), 東・石洞 h:19.0, d:13.1, 구멍: 도깨비무늬, 날개를 빼고, 입에서 몸통에 싸라기 무늬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다. 입이 몸통에서 올라가 밖으로 말려서 마무리되었다. 날개, 입, 날개 모습 따위에서 아시아 가마솥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공용일기(公用日記) 음량현목록(蔭涼軒目録)의 고칸스(小罐子)라는 이름은 이 가마솥 말한다.
	30 차 가마솥 바탕그림(茶釜下図), 18C(江戸) 30, 31 번 작품은 차 가마솥 바탕 그림으로 무로마치 때 야마토 그림(大和絵)화가 토사(土佐光信, 1469?-1522?)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그림은 버드나무에 다리, 솥에 학 따위 12 가지이다. 30번 그림은 책자 형으로 되어 있다. 東京藝術大学図書館
	31 차 가마솥 바탕그림(茶釜下図), 18C(江戸) 토사(土佐光信, 1469?-1522?)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차 가마 바탕 두루마리 그림이다. 아시아 차 가마솥 특징이 잘 나타나있는 신나리(真形) 형도 있고, 아시아 차 가마솥으로 보기 드문 평형 가마(平釜)나 후지산 형태도 보인다. 그림에도 모두 12 가지가 그려져 있다. 福岡市美術館, 30.8×37.4
32 센리큐 편지(千利休書状) 16C. 桃山時代, 東京・五島美術館 싸라기 무늬 가마솥 바탕은 꼭 고쳐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바탕 모습도 조금 고쳤으면 합니다. 각별히 정이 든 가마 솥이니 잘 간직할 값이 있는 물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8월 3일 宗易, 싸라기무늬 가마솥의 바닥 수리를 부탁한 것에 대한 리큐의 답장이다. 모모야마 때 솥 바닥을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것이나 리큐가 담당하여 차 도구 수리를 부탁한 것 따위를 알 수 있다. 霰之御かまのそこ急度可申/付候次にその成をも少/なをし可申候 一段の面白/御釜にて喉弥ヶ御秘藏/尤たるへく喉猶歸齋ニ申候 恐惶謹言/	

IV	물가 소나무 그림 아시아 가마솔(浜松図の芦屋釜) , 아시아 가마솔은 푸성귀, 짐승 그릇 따위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물가 소나무 그림이 많다.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10 개가 넘는다. 아시아 가마솔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몸통 아래에는 싸라기나 진눈깨비 무늬로 물가를 나타내고, 그곳에 소나무 숲을 둘러서 그린 것이 많다. 소나무는 굽혀 있고, 두 줄기가 엉켜있는 경우도 있다. 소나무 잎은 옆으로 뻗은 것도 있고, 삼각형으로 무성하게 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이다. 아시아는 온가가와(遠賀川) 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로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소나무로 유명하다. 나라 시대 이후 일본의 여러 문학 작품 가운데 멋진 경치로 소개된 곳이 가마솔 무늬로 사용되었다. 이후 가마솔 그림이나 문학 작품에 무지개다리나 물에 뜬 배 그림도 자주 사용되었다.					
33	물가 소나무 그림 가마솔(浜松図真形釜) 芦屋 室町  h:17.0, d:14.3, 24.5, 구멍: 도깨비무늬, 부드러운 어깨와 둥근 몸통이 인상적인 가마솔이다. 온 몸통에 굽은 소나무 줄기가 좌우로 활처럼 굽혀 있다. 또한 소나무 줄기에는 정으로 꼬아서 무늬를 새기기도 했다. 모래사장을 나타낸 크고 작은 싸라기 무늬로 보아서 초기에 만들어졌다. 아시아 가마솔 작품의 대표작이다. 15C. 東京国立博物館 重要文化財	34	물가 소나무 그림 가마솔(浜松図真形釜) 芦屋 15C.(室町)  h:22.2, d:13.2, 23.3, 구멍: 도깨비무늬, 어깨에는 한 줄이 둘러쳐 있고, 줄 아래에서 어깨 부근에 진눈깨비무늬를 새겨서 안개를 나타냈다. 33 번 작품과 거의 비슷하며 크기가 조금 다르다. 소나무 줄기 주변에 끌로 새긴 무늬가 같다. 온 몸통에 굽은 소나무 줄기가 좌우로 활처럼 굽혀 있다. 兵庫・瀬川美術館			
35	물가 소나무 그림 가마솔(浜松図真形釜) 芦屋 15C.(室町)		36	물가 소나무 배 그림 가마솔(浜松舟図真形釜), 芦屋  h:19.8, d:15.4, 26.5, 구멍: 도깨비무늬, 날개는 떨어졌고, 바닥은 고쳤다. 몸통 두 곳에 물가 소나무, 바다와 배를 그렸다. 서로 엉킨 소나무 가지 사이로 타원형 소나무 잎이 특징적이다. 가는 싸라기눈으로 나타낸 잔물결은 그 때 그림의 특징이다. 굽은 싸라기눈으로 모래사장을 나타냈다. 배는 돛을 높여 바람을 맞아 나가고 있는 풍경이다. 15C.福岡市美術館		
37	스미요시 그림 가마솔(住吉図真形釜, 芦屋, 15C.(室町))  h:18.4, d:15.8, 26.5, 구멍: 도깨비무늬, 아시아 가마솔의 특징인 반짝이는 장어 껍질무늬가 겹겹 잘 나타나있다. 몸통 두 곳에 물가와 숲, 높은 돛대를 단 큰 배가 그려져 있다. 배 아래에는 산과 같이 높은 파도가 그려져 있다. S자모양의 희극적인 소나무와 굽은 싸라기눈으로 나타낸 모래사장 따위 움직이는 듯 한 경치이다.		38	스미요시 그림 가마솔(住吉図真形釜), 芦屋, 15C.(室町)  h:18.8, d:13.2, 25.5, 구멍: 도깨비무늬, 앞쪽에 큰 도리이, 왼쪽과 오른쪽에 굽혀진 소나무가 있고, 돛대를 단 배가 지나가는 바다가 그려져 있다. 뒤에는 타원형 무지개다리와 물가가 그려져 있다. 도리이와 굽은 소나무에는 자족본 36가선화(佐竹本36歌仙繪)에 나오는 스미요시다이묘신(住吉大明神)이 그려진 스미요시 그림이 있다. 무성한 소나무 잎은 굽은 줄기 위에 타원형으로 그렸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V	아시아(芦屋) 가마솔과 덴묘(天明) 가마솔 - 아시아 가마솔은 신나리형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숲, 대나무, 매화 따위 식물, 학, 해오라기 따위 새, 사슴, 말, 사자 따위 짐승, 칠보무늬(七寶繫, 싯포즈나기), 이어진 거북등무늬 따위 여러 가지이다. 그밖에 굽고 가는 선이나 높고 낮은 모양 따위가 있다. 아시아에서 처음 가마솔을 만든 사람은 묘에(明恵上人, 1173-1232)라고 전해진다. 한편 덴묘 가마솔은 형태가 여러 가지이다. 짧은 세 다리의 도빙 차 가마솔(土瓶茶釜)에서 시작되었다. 1023년 처음 차 가마솔을 만들기 시작하여 그 때 연호를 따서 안삼 가마솔(安三釜)이 기본형이다. 조하리(常張釜) 가마솔, 가사(笠釜) 가마솔, 조청(提灯釜) 가마솔 따위가 대표작이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였고, 무늬가 없으며 오목 볼록 바위와 같은 살갯이나 갈라진 결모습이 매력 가운데 하나이다. 쇠로 가마솔을 만든 두 지역은 구리로 절에서 사용하는 불상이나 소리를 내는 악기도 같이 만들었다. 후쿠오카 아시아 가마솔은 일찍이 주변의 한반도나 중국의 영향을 일찍이 받아서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고운 무늬나 기술적 숙련도가 높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39	싯포즈나기 가마솔(七宝繫文真形釜) 芦屋, 15C.(室町)  h:19.1, d:15.1, 25.8, 구멍: 도깨비무늬, 부드러운 장어 껍질에 칠보무늬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다. 입은 듬직하게 올라가 있고, 어깨는 부드럽다. 어깨에서 아래로 넓어졌다. 몸통 가운데 고리 구멍이 달려 있다. 멋진 정감이 아직도 느껴진다. 京都, 相国寺, 重		40	와치가이무늬가마솔(輪違文真形釜), 芦屋, 15C.(室町)  h:15.2, d:12.6, 21.8, 구멍: 도깨비무늬, 와치가이무늬는 싯포즈나기 무늬와 같다. 어깨에 줄이 있고, 줄을 중심으로 전체에 둥근 무늬가 우아하게 이어서 새겨져 있다. 東京, サントリー美術		
41	싸라기 둥근 창무늬 가마솔(霰地円窓梅竹図真形釜 福岡県, 芦屋, 15C.(室町), 鋳鉄製, 出雲・松平家伝来 (松平不昧治郷所持)     h:20.8, d:13.3, 26.8, 구멍: 도깨비무늬, 아시아 가마솔 가운데 이처럼 싸라기 무늬 속에 둥근 창을 만들어 무늬를 새기는 경우가 있다. 어깨에서 굽은 날개에 걸쳐서 약간 뾰족한 싸라기 무늬가 새겨져 있다. 어깨에는 두 줄을 둘러서 엄두 무늬를 새겼다. 몸 앞뒤에 둥근 창을 만들어 매화와 대나무를 그려 넣었다. 고리 구멍으로 보아 21 번 작품과 비슷하게 무로마치 후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42	싸라기 둥근 창무늬가마솔(霰地円窓松竹梅図真形釜)  h:16.3, d:11.3, 구멍: 도깨비무늬, 약간 작고 뾰족한 싸라기 무늬가 입에서 날개까지 새겨져 있다. 앞 둥근 창에는 술과 시누대의 입과 가지가 선으로 그려져 있다. 뒤 창에는 매화나무에 꽃봉오리와 꽃이 주걱 누르기와 선으로 새겨져 있다. 길상무늬인 송죽매가 한 작품에 나오는 것은 아시아 가마솔 가운데 비교적 높은 예이다. 芦屋, 15C.(室町), 東京, 泉屋博古館分館		43	싸라기 단풍부채말무늬 가마솔(霰地楓団扇馬図釜,) 芦屋,  h:14.2, d:10.9, 19.3, 구멍: 도깨비무늬, 약간 작은 크기이다. 키가 큰 입이다. 어깨가 강하게 벌어졌다. 몸통 중심에서 어깨까지 부채 창 안에 말 한 마리가 역동적으로 조원을 달리고 있다. 말 윤곽은 날렵이가 다른 주걱으로 근육을 섬세하게 나타냈다. 뒤에도 똑같이 말이 그려져 있다. 다만 꼬리 모양이 다르다. 15C.(室町), 大阪・湯木美術館		
44	솔학갈개 백로무늬가마솔(松鶴芦鷺図真形釜), 文化庁  h:19.9, d:14.9, 25.4, 구멍: 도깨비무늬, 앞쪽에 물가 난 솔 위에 학 두 마리가 있고, 뒤편에는 갈대가 있는 물가에 백로가 모여 있다. 몸통 그림은 미달이 그림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싸라기무늬는 날개에 까지 새겨져 있다. 부드러운 어깨에 약소한 고리 구멍이 나있다.		45	새그림 가마솔(鳥図真形釜), 銘濡鳥, 芦屋, 15C.(室町)  h:20.2, d:14.2, 27.2, 구멍: 둥근 산 무늬, 몸통 에 큰 날개를 펼친 새가 두 쪽에 새겨져 있다. 앞쪽에는 부리를 열었고, 다른 쪽은 부리를 닫고 있다. 입 아래와 어깨에 한 줄이 둘러쳐져 있다. 자유스러운 작품이 돋보인다. 노무라(野村紹綱)가 가지고 있었고, 상자 안에 벽운대(碧雲臺)라는 사인으로 보아 마스다(増田鈍翁)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時代 東京国立博物館		
46	사자목단가마솔(獅子牡丹図真形釜), 芦屋, 15C.(室町)  h:18.4, d:15.6, 26.3, 구멍: 도깨비무늬, 큰 목단꽃과 약동적인 당사자가 굽은 선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당사자와 목단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단 짝이다. 사자는 뒷발로 서서 목단을 앞발로 걸쳐놓고 있을 벌리고 있다. 뒤편은 사자가 목단과 노는 자세로 입을 벌리고 있다. 입 부근에는 두 줄이 둘러져 있고 엄두무늬가 새겨져 있다. 東京, 五島美術館		47	먼산말무늬 가마솔(遠山五匹馬図真形釜), 芦屋, 15C.(室町)  h:19.0, d:16.2, 19.0, 구멍: 도깨비무늬, 몸통에 아무 것도 꾸미지 않고, 앞쪽에 털을 바람에 날리며 달리는 말, 뒤편에는 풀을 뜯어먹는 말을 기세 좋게 새겨놓았다. 선이 굵고, 명확한 선으로 정교한 모양이다. 기세 좋게 수직으로 올라간 입이나 벌어진 어깨, 당당한 고리 구멍 따위에서 강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東京国立博物館		

48	단풍 사슴 그림 가마솔(楓鹿図文眞形釜), 芦屋, 15C.(室町)	49	솔 대나무 그림 가마솔(松竹図眞形釜), 芦屋, 15C.(室町), h:18.7, d:13.7, 24.5, 구멍: 도깨비무늬, 오래된 소나무 줄기가 가운데 있고, 뻗은 가지가 고리 구멍 가까이까지 미치고 있다. 어깨에 한 줄이 둘러져있고, 줄 부근에 싸라기무늬가 새겨져 대나무 잎과 솔잎이 겹쳐져 있다. 뒤에는 마디가 굵은 대나무와 어린 대나무가 겹쳐져 있다. 소나무 껍질이나 굵이치는 뿌리 따위에서 일체적인 힘이 느껴진다. 大阪・湯木美術館
50	황매화무늬 가마솔(山吹文眞形釜), 芦屋, 15C.(室町), h:18.2, d:13.9, 24.2, 구멍: 도깨비무늬, 부드러운 어깨와 둥근 몸통에 짧은 날개가 있다. 황매화가 입에서 날개까지 온 몸통에 새겨져 있다. 면으로 된 꽃잎과 선으로 된 꽃술이 우아하게 나타난 작품이다. 황매화가 흩어진 모습은 헤이안 때 구리거울을 보는 것 같다. 東京, 石洞美術館	51	매화무늬 가마솔(梅花散文眞形釜), 芦屋, 15C.(室町) h:16.2, d:13.2, 23.6, 구멍: 도깨비무늬, 활짝 핀 매화가 온 몸통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매화 앞모습과 옆모습이 율동적으로 새겨져 있다. 매화 향기가 느껴지는 듯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비교적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52	박그림 가마솔(夕顔図眞形釜), 福岡県, 芦屋, 15C.(室町), 鑄鉄製 h:17.5, d:-, 28.3, 구멍: 도깨비무늬, 입이 강하게 감아 올라가 있다. 어깨는 부드럽고, 몸통은 부풀어 있다. 몸통 아래 쉼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위에 박 덩굴이 올라가 있다. 원래 신나리형이었지만 몸통 아래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 62번 작품과 비교하여 고리 구멍이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것이나 몸통의 둥근 모양 따위로 보아서 초기 무로마치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난 고친 흔적으로 보아 매우 소중히 여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가마는 후쿠오카현 온가가와군 온가가와 하구 아시아에서 만들어졌다. 차 전용 가마솔로 신나리형이 기본적인이다.
53	송죽매무늬가마솔(松竹梅蓮池文眞形釜), 芦屋, 15C.(室町) h:22.0, d:14.2, -, 구멍: 도깨비무늬, 입 아래가 꼭 죄어있고, 어깨가 강하게 벌어졌다. 앞에는 솔, 대나무, 매화, 뒤에는 연못에 핀 연잎이 새겨져 있다. 아시아 가마 무늬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가마솔을 담은 속 상자에 센노스탄(千宗竺) 렌치후로가마 후신(れんちふろ釜 ふしん)이라고 쓰여 있다. 京都, 野村美術館	54	가을 풀 그림 가마솔(秋草図眞形釜), 芦屋, 15C.(室町) h:15.7, d:11.2, 20.6, 구멍: 도깨비무늬, 어깨가 벌어졌고, 날개를 지나면서 좁아졌다. 고리 구멍은 어깨보다 낮게 달려 있다. 몸통에는 마타리, 참억새, 국화 따위 가을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억새는 전체를 휘감고 있고, 진 꽃술이 달려 있다. 마타리 꽃은 타원형 싸라기로 나타났다. 국화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그려 놓았다.
55	벚나무 버드나무 가마솔(桜柳図小眞形釜), 芦屋, 15C.(室町) h:14.0, d:10.0, 19.1, 구멍: 도깨비무늬, 입은 곧게 솟아있고, 어깨는 비교적 부드럽고, 좁은 날개가 달려 있다. 입쪽 어깨에는 한 줄이 둘러쳐 있고, 아래로 몇몇이나 꽃봉오리가 가지에 달려 있다. 뒤편에는 버드나무가 굽힌 줄기에 잎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다. 버드나무는 윤곽선을 사용하여 나타냈고, 벚꽃은 오돌토돌하게 표시했다. 녹색 버드나무, 분홍색 벚꽃 사이로 봄바람이 느껴진다.	56	울타리에 나무그림 가마솔(籬に松梅柳図眞形釜) h:18.0, d:13.6, 18.0, 구멍: 도깨비무늬, 앞쪽에 영성한 울타리가 몸통 아래 있고, 좌우로 물결처럼 굽혀진 솔, 매화, 버드나무가 독특하게 그려져 있다. 길게 파서 기교적으로 새긴 고리 구멍이나 싸라기무늬를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나타난 물가 따위가 21번 작품과 비슷하다. 芦屋, 15C.(室町)
57	초롱 가마솔(提灯釜), 天明, 16C.(室町), 東京, サントリ美術館 h:21.0, d:9.8, 28.0, 구멍: 개구리무늬, 배가 풍성처럼 옆으로 부풀어있고, 어깨에는 단이 만들어져 있다. 모습이 초롱같다고 하여 이 이름이 지어졌다. 거친 겉모습과 개성적인 형태에서 덴묘(天明) 가마솔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그릇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개구리 모양 고리 구멍이 있다. 기록으로 나고 야에 살던 모리카와(森川の如春庵, 1887-1980)가 가지고 있기도 했다.	58	힘줄 가마솔(筋釜), 天明, 16C.(室町), 東京国立博物館 h:16.1, d:13.1, 24.2, 구멍: 먼 산 무늬, 몸통 옆모습이 타원형이다. 몸통 위쪽에 4 단이 만들어져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바깥쪽에 있는 단과 같은 단이 안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만들 때 물레를 사용했다. 물레는 아시아 가마솔뿐만 아니라 덴묘(天明) 가마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이 가마솔에서 확인할 수 있다.
59	두터운 입 가마(口厚釜), 天明, 16C.(室町), 東京国立博物館 h:17.5, d:13.0, 27.6, 구멍: 먼 산 무늬, 에도 때 상자에 두터운 입 가마라고 쓰여 있다. 입 두께가 6mm 정도로 다른 덴묘 가마솔에 비해 조금 두텁다. 형태는 주관알을 약간 눌러놓은 것 같다. 덴묘 가마솔의 특징인 거친 겉모습이 어깨 위쪽에 잘 나타나 있다.	60	세메히모가마솔(責紐釜), 天明, 16C.(室町) 伝井伊直弼 h:18.5, d:12.5, -, 구멍: 주사위 무늬, 공과 같이 둥근 모양에 낮은 입이 달려 있다. 주사위 모양의 작은 고리 구멍이 있다. 세메히모는 귀족에게 차를 대접할 때 구멍에 끈을 넣어서 고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닥에 수리한 흔적이 있다. 이이(井伊直弼, 1815-60)의 애용품이었고, 차 모임에서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滋賀・彦根城博物館所蔵
61	세메히모 가마솔(責紐釜), 天明, 16C.(室町), 根津美術館 h:17.2, d:11.8, 26.5, 구멍: 주사위 무늬, 세메히모가마솔은 상산종이(上山宗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가지고 있었다고 적혀있어서 유명하다. 몇 작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덴묘(天明) 차 가마솔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메히모 가마솔은 부드러운 어깨의 반구형 모습에 입가에 주사위모양 고리 구멍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62	벌어진 입 가마 솔(十王口釜) 天明, 東京・根津美術館 h:17.2, d:12.4, 26.7, 구멍: 먼 산 무늬, 입이 수직으로 올라가 약간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모습이다. 죽은 이를 심판하는 염라대왕 관과 비슷하다고 해서 주오우구치(十王口) 혹은 염라왕(閻羅王) 입이라고 한다. 입은 두껍고, 어깨는 강하며 부드럽게 벌어져 있다. 고리 구멍은 비교적 크고 먼 산 모양이다. 아래쪽에 수리하였다. 몸통 한 가운데 방장(方丈), 뒤에는 득월(得月) 설촌필(雪村筆)이라고 새겨져 있다. 설촌(1504-?)은 화가스님이었다.
63	이중어깨가마솔(二重肩釜) 天明, 16C.(室町), 栃木県立博物館 h:13.6, d:8.6, 26.2, 구멍: 매미 무늬, 제사상에 올리는 딱처럼 몸통에서 수직으로 한 단이 올라가 어깨가 만들어져 있다. 입은 작고 입가에서 어깨에 걸쳐 좌우로 약간 반전되어 있다. 고리 구멍은 개구리 모양이다. 무게감이 느껴지고 기발한 생김새이다.	64	차축가마솔(車軸釜), 天明, 16C.(室町), 東京, 石洞美術館 h:20.3, d:11.2, 27.2, 구멍: 꽃무늬, 입이 매우 높다. 가는 선이 여러 겹 새겨져 있다. 어깨는 수평으로 벌어져 덴묘 가운데 개성적이다. 생김새가 차축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리 구멍은 덴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 모양으로 어깨에 붙여 있다. 같이 부수려 떨어질 것 같이 거칠다.
65	시루입 가마솔(甌口尾垂釜), 天明, 16C.(室町) h:18.4, d:15.8, 26.8, 구멍: 아마츠라(安摩面) 괴물 무늬, 오래된 덴묘 가마솔이다. 입 언저리에 힘줄이 한 겹 둘러쳐져 있다. 시루형 키가 큰 입에 큰 고리 구멍이 달려있고, 길이 거칠다. 야성미 넘치는 미적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京都, 細見美術館	66	둥근입가마솔(天猫姥口釜, 姥口丸釜), 天明, 16C.(室町) h:19.2, d:12.0, 27.4, 구멍: 도깨비 무늬, 노무라(野村紹鷗, 1502-55, 大黒庵)가 쓴 편지에 의하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오다가 좋아해서 늘 보면서 노래를 짓기도 했다고 한다. 우바구치(姥口)는 나 이 들어 이가 없어진 할머니 입을 말한다. 大阪, 藤田美術館

67	삿삿 가마솔(笠釜), 天明 16C.(室町), 京都・野村美術館	68	후지 가마솔富士釜, 栃木県佐野市, 天明, 16C.(室町),
	h:18.7, d:12.3, 20.5, 구멍: 볼록 무늬, 차도구 가운데 명품에 붙여지는 중흥명물(中興名物)이다. 이름처럼 생김새가 삿삿처럼 생겼다. 고리 구멍은 각진 볼록무늬로 개성적이다. 위쪽은 처음 만든 대로 남아있지만 바닥은 수리했다. 센리큐(千利休)가 후루타(古田織部, 1543-1615)에게 쓴 편지가 같이 전해지고 있다. 京都, 細見美術館		h:19.8, d:11.2, 25.9, 구멍: 아마즈라(安摩面) 괴물 무늬,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서 후지산처럼 좌우로 넓어졌다. 입은 약간 올라갔고, 입 부근은 다른 텐묘 가마솔처럼 겹이 거칠다. 고리 구멍은 아마즈라 괴물 모습이다. 눈이 무섭고 턱 아래로 수염도 그려져 있다. 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가 알 수 없다. 곡선이 개성적이고, 수 밀리미터로 얇게 만들어져 기술적 재능이 돋보인다. 鉄鑄製
69	진눈개비 둥근 가마솔(霰地丸釜), 天明, 16C.(室町)	70	손잡이 달린 가마솔(手取釜), 天明, 16C.(室町) 京都, 細見美術館
	h:18.9, d:11.9, 24.9, 구멍: 도깨비 무늬, 좀 낮은 염라대왕 입이다. 어깨에서 시작된 온몸통이 둥글다. 진눈개비 눈을 곁에 나타낸 텐묘 차 가마솔로 보기 드문 작품이다. 고리 구멍은 약간 바뀐 도깨비 무늬이다. 京都, 細見美術館		h:14.2, d:11.8, 19.9, 어깨가 벌어졌고, 몸통이 둥글고, 손잡이와 물 따르는 곳이 달린 가마솔이다. 이러한 생김새 가마솔은 여러 곳에서 만들어져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자주 나온다. 텐묘 가마 솔 가운데 비교적 오래되었다. 차구비토집(茶具備討集)이나 센리큐(千利休, 1522-1591)의 차 모임 기록에도 나온다. 세 다리가 달린 것도 있다.
71	세발 가마솔(三足釜), 天明, 16C.(室町), 東京国立博物館	72	가마 솔(湯釜), 天明 1548(室町), 千葉・香取神宮
	h:17.0, d:27.0, 구멍: 꽃 무늬, 가마솔 유래(湯釜由緒)에 나오는 텐묘 가마솔의 기원에 해당하는 세 다리 가마와 비슷하다. 큰 시루형 입과 어깨 부분에 각이 진 둥근 몸통(가타즈키, 肩衝形)이다. 몸통 아래에는 세 곳에 짧은 다리가 달려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가마솔로 추측된다.		h:57.6, d:102.6, 입은 밖으로 벌려져 있고, 통나무(寸胴, ズンドウ) 생김새이다. 입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얇게 만들었다. 73번 작품과 같이 텐묘 기술자의 기술적 완성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입 바깥쪽에 만든 해와 만든 이 이름(卜部宣重)이 새겨져 있다.
73	구리 사당(銅祠), 16C.(室町), 栃木, 温泉神社 重要文化	74	차 가마 유서(湯釜由緒, 正田家文書) 19-20C.(明治)
	높이:28.5, 가로:37.5, 너비:30.5, 구리로 만든 작은 집 모양 사당이다. 지붕 위에 만든 해와 만든 이 이름(天命 住宣吉)이 쓰여 있다. 지붕이 길고, 반전이나 얇은 구리판이 걸작이다. 단순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가로:17.3, 세로:24.8, 에도 때 대장장이 마사다(天明鑄物師, 正田治郎右衛門)가 쓴 기록이다. 대장장이의 유래가 자세히 적혀있다. 939년 오사카에서 이사해 왔다는 사실이나 토병 차가마솔(土瓶茶釜)을 만들고, 고리 구멍을 환자(鑲子)라고 부른다고 쓰여 있다.
			75
			매화대나무그림 가마솔(梅竹図真形釜), 伊勢 芦屋, 16C.(室町)
			h:18.9, d:12.4, 23.6, 鑄鉄製, 이세아시아는 미에현(三重県津市, 伊勢国安濃津)에서 만들어졌다. 고리 구멍이 몸통 가운데에 있고, 약간 변형된 도깨비 무늬이다. 어깨에 줄이 둘러쳐져 있고, 어깨에서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간 모습은 아시아 가마솔과 비슷하다. 앞에 굵은 줄기의 매화대나무와 매화, 뒷면에는 대나무가 새겨져 있다. 아시아 가마솔에서 술과 더불어 물가를 나타내는 싸라기눈 모습은 여기서는 매화대나무를 지탱하는 땅을 강조하고 있다.
	76	호랑가시나무그림 가마솔(柊図真形釜), 伊勢 芦屋, 16C.(室町), 京都・細見美術館	h:18.7, d:15.1, 24.3
			이세(伊勢, 三重県)와 치구젠(筑前, 福岡博多)은 바다로 이어져 있다. 17번 향로 가마솔과 같이 이세에 만든 향로로 아시아(芦屋) 대장장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세아시아(伊勢芦屋) 가마솔의 특징은 무늬감이 있고, 겹이 검은 색을 띠고 있다. 그림이 섬세하게 나타나 있다. 어깨선이 부드럽게 몸통으로 이어져 있다. 고리 구멍은 도깨비 무늬로 거의 몸통 중앙에 가깝다. 호랑가시나무 잎이 앞면에 그려져 있다. 호랑가시나무는 묘아자나무(Ilex cornuta LINDL.)라고도 하며 감탕나무과이다. 한반도 남부를 비롯한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며 4,5월에 꽃이 피고, 9,10월에 빨강계 열매가 익는다. 상록 나뭇잎은 육각형으로 모서리에 가시가 나있다.
VI	요지로(与次郎)와 초기 교토 가마솔(京釜), 아시아 가마솔이나 텐묘 가마솔은 무로마치 때 인기가 있었다. 1554년 차구비토집(茶具備討集)에는 교토 가마솔이 보인다. 교토 가마솔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토 가마솔은 센리큐(千利休)가 교토 산조가만자(三条金座)의 대장장이 츠지요지로(辻与次郎)에게 자신이 고안한 가마솔을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요지로는 아미다도(阿弥陀堂) 가마솔, 운료(雲龍) 가마솔, 시리하리(尻張) 가마솔, 요호(四方) 가마솔 따위를 만들어 에도(江戸) 때 높이 평가를 받았다. 걸작은 148 점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42 점이 요지로가 제자들과 더불어 만든 것이다. 처음 만든 아미다도 가마솔은 호소가(細川幽齋)와 집에 기증했지만 불이 나서 없어졌다. 지금 남은 아미다도 가마솔은 곁에 주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교토 가마솔의 한 기법이 되었다. 요지로가 가마솔을 만든 산조가만자는 1602년 무렵 대장장이 67명이 살았다. 나고시(名越善正)나 니시무라(西村道仁)가 유명하다. 1624년에서 20년 간 오니시(大西淨林)가 미나미야마시로(南山城)에서 산조가만자로 옮겨 교토 가마솔의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77	아미다도 가마솔(阿弥陀堂釜), 与次郎, 16C.(桃山)	78	아미다도가마솔(阿弥陀堂釜), 与次郎, 16C.(桃山),
	h:-, d:-, -, 구멍: 도깨비 무늬, 뚜껑은 아미다도 가마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가라카네(唐銅) 구리로 가운데가 약간 부풀어 올랐다. 측면(縮緬, ちりめん)으로 옆줄이 곁에 나있다. 고운 날실에 말린 들 실을 사용하여 옆 무늬를 강조하여 짜는 베를 말한다. 어깨가 비스듬하고 어깨와 몸통이 만나는 곳에 고리 구멍이 나있다.		h:19.4, d:14.4, 26.9, 구멍: 도깨비 무늬, 얇은 입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다른 아미다도 가마솔처럼 입은 곧추 세워져 있고 밖으로 감겨서 마무리되었다. 어깨는 입 아래에서 몸통으로 비스듬하다. 어깨와 몸통 사이에 약간 변형된 도깨비 무늬 고리 구멍이 나 있다. 코가 약간 위로 향해져 있다. 날개는 벌어졌고, 유자와 같은 살갓에 거친 털 같은 감촉이 어깨나 몸통에 조금씩 보인다. 大阪湯木美術館
79	아미다도 가마솔(阿弥陀堂釜), 京釜, 1602(桃山)	80	시리하리 가마솔(尻張釜), 与次郎, 16-17C.(桃山)
	h:20.8, d:12.0, 25.8, 구멍: 도깨비 무늬, 1602년 다이마(太閤甚四郎)가 시가현 사카모토에 있는 절(来迎寺)에 바쳤다고 몸통에 적혀있다. 어깨선이 부드럽고, 어깨와 몸통이 만나는 곳에 고리 구멍이 도깨비 무늬로 나있다. 어깨에서 날개는 조금 벌어져있고, 날개는 없어졌다. 滋賀・聖衆来迎寺		h:21.1, d:13.2, 28.8, 구멍: 도깨비 무늬, 시리하리 가마솔은 요지로가 자신의 제자들과 만들었다. 1590년 7월 12일 여러 사람들과 차 모임을 열면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宗凡他會記). 생김새나 겹모습이 아미다도 가마솔과 거의 비슷하지만 입이 낮고, 고리 구멍이 조금 낮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81	시리하리 가마솔(尻張釜), 与次郎, 16-17C.(桃山)	82	유노가마 가마솔(湯の釜), 与次郎, 16-17C.(桃山)
	h:20.4, d:12.0, 28.8, 구멍: 도깨비 무늬, 둥근 몸통, 낮은 입, 몸통에 달린 고리 구멍 따위 요지로의 시리하리 가마솔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날개는 떨어져 나갔지만 시리하리 가마솔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宗凡大阪・和泉市久保惣記念美術館)		h:24.0, d:12.3, 25.6, 구멍: 도깨비 무늬, 센리큐 이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 남아있는 가마이다. 유노가마 가마솔은 시리하리 가마솔과 거의 비슷하지만 어깨가 더욱 부드럽고, 몸통이 수직에 가깝다. 좀 더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京都・武者小路千家官休庵)

	83 둥근 가마솥(丸釜), 요지로(与次郎), 16-17C.(桃山) 鑄鉄製 h:19.3, d:13.8, 25.8, 구멍: 도깨비 무늬, 입이 낮고, 거의 수평에 가까운 어깨이다. 어깨 보다는 어깨 아래 몸통에 고리 구멍이 도깨비무늬로 나왔다. 유자와 같이 오돌토돌한 걸면을 하고 있다. 어깨 부근에는 깊이 파인 곳도 있다. 이러한 걸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재능을 사용하였다. 약간 부풀어 오른 뚜껑은 물이 끓을 때 나는 소리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츠지 요지로(辻与次郎) ‘요지로는 교토 북동쪽 시가현(近江国高野庄辻村, 現在の滋賀県栗太郡) 출신이다. 니시무라(西村道仁)의 제자이다. 모모야마(桃山) 대 교토 산조가만자(三条釜座)에 살면서 천하 제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제자 미시로(弥四郎), 도자에몬(藤左衛門)과 더불어 켄리큐(利休)가 좋아하던 아미다도(阿彌陀堂) 가마솥, 운료(雲龍) 가마솥, 시호(四方) 가마솥을 만들었다. 요지로는 대장장이로 능숙한 솜씨를 자랑했다. 그러나 16 세기 후반에서 17 세기 초에 걸쳐서 불분명한 점도 많다. 요지로라는 이름이 적힌 가마솥이 없고, 가마솥 상자도 남아있지 않다. 요지로가 만들었다고 확증이 있는 작품은 매우 적다. 요지로는 처음으로 야키누키기법(焼抜きの技法)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가마솥을 만들면서 검은 색 녹인 산화피막을 없애지 않고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쇠에 녹이 스는 것을 막는다. 또한 가마솥의 몸통과 바닥 사이에 만드는 날개를 없애는 하오치 기법(羽落ちの釜)도 요지로가 만든 가마에서 처음 시도되었다고 한다.	
84 윤료가마솥(雲龍釜), 요지로(与次郎), 16-17C.(桃山),  h:16.1, d:12.8, 12.8, 거친 표면을 지닌 원통형 가마이다. 겉에 용이 기세 좋게 꿈틀거리고 있다. 뚜껑이 안으로 맞춰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윤료 가마솥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85 와니구치(鰐口) 약기, 1590년, 山口・今八幡宮 重要文化財  지름:74.2, 너비:32.6, 현재 남아있는 요지로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원 한 가운데는 도드라진 당좌(撞座)가 있다. 당좌를 중심으로 굽은 줄 둘이 있고, 안에는 다섯으로 나누어 음각으로 줄이 새겨져 있다. 처음 불교 절에 있다가 신사(兵主大社) 하이텐(拜殿)에도 걸려있다.
86 범종(梵鐘), 1610(桃山) 秋田・西善寺  높이:122.0, 입 지름:74.0, 요지로 작품 가운데 85 번과 더불어 만든 해를 확증할 수 있다. 1610년 아키타현 사이젠지 절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같은 곳에 전해지고 있다. 요지로의 작품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작품이다.	87 요호가마(四方釜), 桃山時代, 神奈川一般財団法人茶道宗偏流不審庵  h:20.6, d:12.1, 구멍: 도깨비 무늬, 켄리큐에서 소탄(宗旦)에게 전해져 이후 계보가 알려졌다. 원래 리큐가 지니고 있던 가마 덮개에 맞춰서 나고시(名越三昌,?-1638)가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 가마 솥은 원형으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4각이 독특하다.
88 가타즈키운료가마솥(肩衝雲龍釜), 16-17c,  h:18.9, d:10.3, 16.9, 구멍: 도려낸 무늬, 나고시(名越三昌)는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1542-1616)를 저주하여 토요토미(豊臣)가의 멸망을 불러들였다는 방광사(方廣寺)의 범종 제작에 관여했다. 교토에서 나고시 가문은 후계자를 이어가며 가마솥을 만들었다. 우바구치 입에 드물게 도려낸 무늬 고리를 달았다. 윤료 가마솥으로 비교적 낮고, 입이 원형이며 비교적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89 덮은 보주형가마솥(宝珠覆垂釜), 16-17C.(桃山)  h: -, d:11.9, 29.7, 구멍: 도깨비 무늬, 입가와 어깨에 줄무늬가 새겨져 있다. 몸통에 발을 드리운 것 같다. 겉은 꼬리 모양이고 2 mm 두께이다. 도깨비 고리 구멍은 아시아 가마솥처럼 단정하다. 허가 길고, 옛 모습을 잘 살려서 만들었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90 시루입에 부들무늬가마솥(甌口水に芦文釜), 16-17C.  h:21.0, d:10.9, 26.4, 구멍: 먼 산 무늬, 니시무라(西村道仁,1504-55?)는 니시무라가의 시조이다. 교토 산조가만자에 살면서 오다노부즈가(織田信長)에게 천하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입은 입가가 똑바로 올라간 시루형이다. 시루 입에는 번개무늬가 두 줄로 나왔다. 어깨 부근에는 오목 무늬가 한 줄로 나왔다. 16-17C.(桃山), 大阪・湯木美術館	91 물결 토끼무늬 가마솥(波兎文撫肩平釜)  h:16.4, d:12.0, 27.3, 구멍: 술 샷작 무늬, 고운 걸면 앞에는 버드나무, 뒷면에는 토끼와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오히려 물결은 가늘게 선으로 새겨져 있다. 무늬는 주걱을 사용했다. 입은 수직으로 올라가 있고, 구멍은 술 샷작 무늬이다. 니시무라가의 시조인 니시무라(西村道仁,1504-55?)가 만들었다고 한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92 야마노우에 소지 편지글(山上宗二記) 1588년(桃山), 京都・表千家不審庵 켄리큐(1522-91)의 뛰어난 제자 야마노우에소지가 교야산 안양원에 있으면서 썼다. 스승에게 전수받은 차 가마솥에 대해서 썼다. 이것을 전수받은 사람은 모두 11명이다. 명품 차도구의 열거에서 시작하는 1형과 차 가마솥의 역사에 대해서 쓴 2형이 있다. 이 글은 소지의 자필로 이와야데라(岩屋寺) 절에 보낸 것이다. 켄리큐가 살아있을 때부터 차 도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차 향아리에서 시작하여 차 가마솥은 세 번째 명물지부지수(名物之釜之數)로서 18개를 소개했다.
	93 차구비토집(茶具備討集), 이치오켄소킨(一區軒宗金) 1802, 1554년 차도구의 종류를 적은 책이다. 한자로 주석을 덧붙여 인쇄하였다. 가마솥은 아시아가마 서-국, 텐모 가마솥 동-국, 교토가마솥 이에 가마솥(伊豫釜)이라고 되어 있다. 교토 가마솥이 처음으로 나온 책이다. 전체가 표지를 합해서 모두 52쪽이고, 곳곳에 고려 가마솥이라고 하여 한반도에서 전해온 가마솥이나 차도구에 대해서도 적어놓았다. 早稲田大学図書館 (Waseda University Library)
	93 차유도구자기(茶湯道具字記), 치오켄소킨(一區軒宗金) 차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손으로 쓴 책이다. 모두 32 쪽이다. 그림은 없고 가끔 빨간색을 섞어서 쓰기도 했다. 1554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稲田大学図書館 (Waseda University Library)
	94 가만자츠키누케초문쇼(釜座突抜町文書) 가로:231.0, 세로 27.2 1555년, 1601년 교토 츠키누케초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이다. 직업별 집 크기나 이름이 쓰여 있다. 천하 제일 가마솥 장인 요지로(辻与次郎)를 비롯한 니시무라(西村道仁,宗兵衛), 켄세이(名越善正) 따위 산조가만자(三条釜座)에 살고 있는 장인 이름이 나타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위쪽 사진은 현재와 문서를 만들어진 때의 츠키누케초(突抜町)의 모습이고, 아래 사진이 문서이다.

		95 주가계(鑄家系), 19C. 가로: 46.8, 세로: 33.9 에도 때 나고시 집안 8대(昌孝) 마사타카가 나타난 가마솔 장인의 계보도 판본이다. 교토의 나고시(名越) 집안이나 오니시(大西) 집안, 여기서 갈라나간 호리(堀山城), 시모마(下間庄兵衛), 가나자와(金沢)의 미야사키(宮崎寒雉)가 나온다. 또한 문인계(門人系)로서 니시무라(西村道仁)를 들 수 있다. 오니시(大西淨清)는 나고시(名越三昌) 문인(門人)이고, 요지로(辻与次郎)는 나고시 켄세이(名越善正)의 제자이다. 나고시 집안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니시무라의 부사지유서(釜師之由緒, 1700년), 이나카기 규소(稲垣休叟, 1770-1819)의 차도전체(茶道筌蹄, 1806년)와 더불어 차 가마솔 장인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VII	에도 때 가마솔 , 주지 요지로(辻与次郎)와 그의 제자였던 도자에몬(藤左衛門), 야시로(弥四郎), 그 계통이 끊어졌지만 에도 때에는 나고시(名越) 집안, 니시무라(西村) 집안, 오니시(大西) 집안이 융성했다. 이 세 집안은 에도(江戸) 때에도 활발히 나누어지기도 했다. 에도 때에는 신나리(真形)형 가마솔도 있었지만 독창적인 모습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풍부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바탕 생김새는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것, 줄무늬가 있는 것, 토기처럼 거친 것도 보인다. 센리큐(千利休)가 만든 운료(雲龍) 가마솔을 보기도 들면 크기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가타즈키(肩衝, 어깨가 튀어나온 모습), 몸통을 비튼 것, 아래쪽을 순무처럼 둥글게 키운 자즈기운료(座付雲龍) 따위, 이미 있었던 생김새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어깨를 크게 만든 가마솔은 그 어깨에 무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화로에 가마솔을 얹힐 때 가마 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니시무라, 나고시에 의해서 가마솔 장인의 계보 기록이 간행되어 가마솔 연구의 바탕이 마련되었다. 다만 나고시, 니시무라, 오니시 집안과 그 분가 이외의 장인 가문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가나자와(金沢)에는 우라센케(裏千家) 4대 켄스(善叟)의 지도를 받은 미야자키 간치(宮崎寒雉)가 독자적인 작품을 전개했다.		
	96 물구멍가마솔(田口丸釜), 京釜, 1643(江戸), 東京国立博物館  h:16.6, d:13.8, 28.8, 구멍: 아마즈라(安摩面) 괴물 무늬, 공처럼 둥근 가마솔이다. 입 언저리 아래에 굴이 파여 있어서 다구치 물구멍이라고 부른다. 몸통 뒤에 광명산 아미타사상주(光明山阿彌陀寺常住-施主壽圓)와 만든 해가 돌을 새겨져 있다. 이 절은 교토 오하라(大原)에 지금도 있는 정토종 절이다. 아마즈라(安摩面) 괴물 무늬 구멍은 갈기를 새우고 앉았다. 이와 비슷한 고리가 오니시(大西) 가문에 전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토 가마솔이 틀림없다.	97 싸라기무늬 둥근 가마솔(霰乙御前釜), 17(江戸), 大西淨林  h:18.3, d:13.5, 27.6, 구멍: 아마즈라(安摩面) 괴물 무늬, 입은 우바구치 형이다. 어깨에서 아래로 점점 퍼졌다. 겉에 싸라기무늬가 흩어져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어깨에 아마즈라 괴물무늬 구멍이 달려있다. 오니시 조린(大西淨林, 1550-1663)이 만들었다. 그는 교토 남쪽 미나미야마(南山城広瀬村) 출신이다. 1624년에서 44년 사이에 산조가만자로 이사하여 나고시(名越三昌)의 제자가 되어 차 가마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니시 가문 차 가마솔의 창시자이다. 大西清右衛門美術館	
98 부드러운 어깨 가마솔(撫肩釜), 17C.(江戸), 淨清  h:17.1, d:13.8, 27.7, 구멍: 돛대 무늬, 담아 놓은 상자에 만든 사람인 오니시(大西) 가문 2대 정청(淨清 1594-1682) 이름이 쓰인 드문 가마솔이다. 입은 오래되어 닳았다. 어깨 부근은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 오돌토돌하다. 몸통은 매끈하게 마무리되었고 물결무늬가 있다. 어깨부근에 돛대무늬 구멍 고리가 나있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99 차 절구모양 가마솔(茶臼釜), 17C.(江戸), 淨清  h:17.2, d:13.0, 27.1, 구멍: 교사리무늬, 오니시(大西) 가문 2대 정청(淨清 1594-1682)이 만들었다. 입에는 꽃잎 다섯 장이 새겨져 있다. 찻잎을 찌는 절구 모양이다. 몸통 둘레에는 그물, 칠보무늬 따위 네 종류가 네 모서리에 새겨져 있다. 부풀어 오른 아래에는 물결무늬가 있다. 꽃잎이나 교사리 따위는 봄 풍경을 자아낸다. 京都・大西清右衛門美術館		
100 학모양가마솔(鶴の釜), 17C.(江戸), 大西淨清(1594-1682)  h:17.2, d:12.0, 24.2, 구멍: 물방울 무늬, 오니시 가문에서 대를 이어 가마솔을 만들 때 모범으로 꼭 참고하는 가마솔이다. 학이 넓게 날개를 펼친 모습이 가마솔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 입에서 시작되는 날개 모습은 한 장 한 장 입체적이며 유려하다. 이러한 발상과 조형력, 기술력, 예리한 미적 감성이 엿보이는 걸작이다. 京都・大西清右衛門美術館	101 운료우 가마솔(雲龍釜), 17C.(江戸),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h:17.1, d:12.2, 12.8, 구멍: 술방울 무늬, 니시무라(西村九兵衛)는 니시무라(西村道仁)의 손자 혹은 제자인 야이치로(弥一郎道弥)의 친척이라고 하나 자세하지는 않다. 입에서 몸통 전체가 잘 마무리되어 있다. 술방울 무늬 고리가 있고, 겉에는 주름무늬가 있다. 용 모습은 둥근 싸라기 모양을 이어서 만원형으로 나타났다. 구름무늬도 뚜렷하게 잘 나타났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102 매미가마솔(蟬釜), 18-19C.(江戸), 名越建福  h:17.1, d:15.8, 29.7, 구멍: 매미 무늬, 입은 약간 올라갔고, 어깨 위에 한 줄이 오목하게 파여 있다. 어깨는 부드럽고, 몸통은 아래로 곧바로 뻗어있다. 겉은 교토 가마솔이 지닌 실을 끈 모습이지만 무늬가 크고, 얇은 굴이 어깨와 몸통에 새겨져 있다. 가마솔은 담아놓은 상자에 쓰인 글자로 보아 나고시(名越建福)가 만들었다. 나고시의 낭고 죽은 해는 알려져 있지 않다. 東京・静嘉堂文庫美術館	103 이게타 가마솔(井桁釜), 17-18C.(江戸), 東京国立博物館  h:15.4, d:12.3, 19.7, 구멍: 원숭이 무늬, 어깨에 우물 정 자형으로 올라타가 처져 있고 막대기가 교차하는 곳에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있다. 그 대각선 방향에는 입을 가린 원숭이가 있다. 뚜껑은 일사각 위에 귀를 막은 원숭이가 앉아있다. 정교하게 원숭이 발상을 새겨 놓았다. 오니시(大西定林)는 오니시 가문 2대 정청(淨清)의 아들로 에도 오니시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		
104 두꺼운입가마솔(口厚釜), 18-19(江戸), 東京国立博物館  h:17.6, d:13.1, 27.4, 구멍: 먼 산 무늬, 59번 작품과 비슷하다. 오쿠히라(奥平佐兵衛)가 1749-1811)는 교토 오니시(大西) 가문의 문인(門人)이다. 오니시 가문을 이어서 9대째가 되어 정원(淨元)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한다. 아들(了保, 1752-1852)이 오쿠히라 가문을 이었다. 형태는 59와 똑같다. 겉도 테묘와 비슷하지만 약간 주름져있다.	105 짧은입가마솔(線口肩衝釜), 16-17C.(桃山), 東京・出光美術館  h:20.6, d: -, 28.2, 구멍: 도깨비 무늬, 가마솔에 딸린 기록으로 규이(久怡)가 만들었다. 그는 센리큐 때부터 나라에서 활동했던 가마솔 장인이다. 떡 벌어진 어깨나 압축된 입, 어깨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드리워진 몸통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 가마솔처럼 고리구멍에는 코가 달렸고 바탕이 파여 있다. 몸통 한 가운데 둥근 원에 흥복사(興福寺), 뒤에는 상주(常住, 영원불변)라고 쓰여 있다.		
106 소금집 모양 가마솔(塩屋釜), 17-18C.(江戸)  h:20.1, d:12.9, 32.7, 구멍: 소금집 무늬, 몸통에 반원, 세 겹 물결무늬, 고동(巻貝)이나 바지락조개가 모래사장에 널려있다. 고리 구멍은 소금집 모양이다. 가마솔 안에 있는 물이 끓으면 술 안과 연결된 고리 구멍에서 수증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센노소탄(千宗旦, 1578~1658) 아들인 우라센케 4대 켄 센노센소(仙叟宗室, 1622-)가 차당을 만들 때 가가(加賀)의 마에다(前田利常) 집안 어른의 명으로 미야자키(宮崎寒雉, -1712)가 만들었다.	107 복수문자가마솔(福寿文字波濤文尾垂釜), 17-18C.(江戸)  h:18.2, d:14.0, 28.3, 구멍: 꽃무늬, 초대 미야자키 간치(宮崎寒雉)가 만들었다. 입 언저리가 오목 파여 한 줄이 새겨져 있다. 몸통 중앙 물결 사이에 복(福) 자, 뒤에는 수(壽) 자가 새겨져 있다. 이 무늬는 관음경에 나오는 복취해무량(福聚海無量)라는 관음보살의 공덕과 고마움을 전하는 뜻이 있다. 石川県立美術館		
108 차한 가마솔(宗徳自在茶飯釜), 1653, 大阪, 湯木美術館  h:15.3, d:16.8, 25.3, 구멍: 삼각무늬, 차한 가마솔은 가이세키 요리를 먹을 때 밥을 짓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솥이다. 뚜껑은 쇠와 구리로 된 것이 있다. 목적이 맞게 쓴다. 센노소탄(千宗旦)이 오사카 사카이 센야(銭屋)를 위해서 만들었다. 몸통에는 기래반(飢來飯), 갈래차(禡來茶), 날개에는 자재암(自在庵)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가마솔은 와다(和田国次)가 만들었다고 쓰여있다. 石川県立美術館	109 미야시마 가마솔(宮嶋釜), 16C. MIHO MUSEUM  h:19.8, d:17.0, 23.3, 구멍: 도리이 무늬, 넓은 입, 입 언저리에서 한 단 오목하게 파여 어깨로 이어졌다. 어깨가 넓게 벌어졌고, 날개까지 이어졌다. 도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가 에도(江戸)의 물길 공사를 끝내고, 오쿠보(大久保藤五郎, 1617)에게 본도(本水)라는 이름을 주고, 물길이 시작되는 샘에 모두 가서 미야시마 가마솔에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고, 이 가마를 주었다고 한다.		

110 대피천목(玳皮天目たいひてんもく), 中国・吉州窯, 12-13C(南宋), 치수, 높이(H)-4.9, 지름(D)-14.8mm

일본 가마쿠라 때 중국 절강성(浙江省) 천목산(天目山)에서 만들어져 스님들이 일본에 가지고 왔다. 천목산(天目山)에서 만들어진 찻사발(茶碗)에서 천목(天目)이라고 한다. 천목 찻사발은 대략 7 가지가 있다. 건잔(建盞), 오잔(烏盞), 요변(曜変), 회피(灰被), 유적(油滴), 황잔(黃盞), 대피잔(玳皮盞) 따위이다. 대피천목의 대피는 거북이등을 말한다. 무늬가 거북이등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 남송 때 장시성(江西省) 길주 가마(吉州窯)에서 구운 것이다. 길주 천목 별잔(吉州天目盞, 베쓰さん)이라고도 한다. 대피(玳皮)는 대모(玳瑁, たいまい)의 갑라(甲羅, べっこう)를 뜻한다. <http://www.sadoukaikan.com/tea/tenmoku.html>

천목 찻사발을 만드는 색깔은 장석(長石), 석회암(石灰岩), 철이온(鉄イオン)을 원료로 사용한 유약에서 나온다. 중국에서 철 성분이 들어있는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 때부터이다. 본격적인 생산은 동진(東晋) 때 절강성(浙江省) 덕청(德淸)가마로 알려져 있다. 백자나 청자와 달리 산화소성(酸化焼成)이나 환원소성(還元焼成)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흑자(黒磁)의 생산은 비교적 손쉬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였다. 중국에서는 시대별로 그릇 색깔이 조금씩 달랐다. 송나라 이후 백자가 유행하여 철 유약을 만든 찻사발은 귀중한 대접을 받았다. 천목차완이 기록에 나온 것은 북송 때 도곡(陶穀, 903 - 970)이 쓴 청이록(『淸異録』)에 건요(建窯)에서 만든 찻사발을 적어놓았다. 이 때 일본은 선종(禪宗)이 유행한 가마쿠라(鎌倉) 때였다. 중국 선종의 중심지는 절강성(浙江省) 천목산(天目山) 부근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학한 선승이 차를 마시는 습관과 관련된 차도구를 일본에 가지고 왔다. 이후 일본에도 귀족층에서 천목 찻사발이 유행하였다. 특히 천목 찻사발(天目茶碗)은 2단으로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차를 따뜻하게 마실 수 있었다. 도자기를 구울 때 쓰는 유약은 보통 철분이 들어있다. 대략 철분이 1-2 퍼센트가 들어있으면 청자가 되고, 15 퍼센트 이상 들어있으면 검은색 그릇이 된다. 철분이 적게 들어간 것을 이유(飴釉, あめゆう), 많이 들어간 것은 시유(柿釉, かきゆう)라고 부른다.

1. 요변천목, 이나바(曜変天目・稲葉天目, ようへんてんもく・いなばてんもく) 国宝
주머니(仕覆, しふく)・金地二重蔓古金襴
가장자리장식(覆輪, 伏輪, フクリン)・無
받침대(台)・尼崎台(紀州徳川家伝来)
전래(伝来)・徳川本家・小田原藩主稲葉美濃正則・小野哲郎・男爵岩崎小弥太
소유(所持)・静嘉堂文庫美術館

2. 요변천목, 미토(曜変天目・水戸天目) ようへんてんもく・みとてんもく 国宝
가장자리장식(覆輪, 伏輪, フクリン)・金
받침대(台)・砂張覆輪
전래(伝来)・家康・水戸徳川頼房・男爵藤田平太郎
소유(所有)・藤田美術館

3. 요변천목, 료코인(曜変天目・龍光院天目) ようへんてんもく・りゅうこういんてんもく, 国宝
가장자리장식(覆輪, 伏輪, フクリン)・無
기록(書付)・江月和尚
전래(伝来)・大徳寺龍光院
소유(所有)・龍光院

4. 시로텐모쿠(白天目, しろてんもく) 朝鮮・刷毛目 大名物
가장자리장식(覆輪, 伏輪, フクリン)・銀
받침대(台)・菱花받침대(台)
전래(伝来)・南禅寺金地院・家綱代々・公爵家達
達・侯爵義親, 소유(所有)・徳川美術館

5. 시가라기 물 그릇(信楽一重口水指)
겉에는 가마 속에서 연료로 쓰인 장작재가 붙어 녹아서 유약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16세기 초부터 시가라기와 히젠은 도자기로 가마솥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질 고풍에 고운 장식가루가 붙어있다. 시가라기 도자기의 독특한 특징이 보인다.

차단지(高取内海茶入), 福岡県, 高取, 江戸, 17-18c, H-5.9, D-8.4
17-18세기 도자기로 만들어진 차 단지이다. 후쿠오카에서 만들었다. 주머니도 갖추어져 있다.

어깨 싸라기 신나리 형 가마솥,
肩霰真形釜 石見芦屋製, 唐銅朝鮮風炉添え, 桃山~江戸, 16-17c, 素材 鑄鉄鑄銅製, 毘沙門堂伝来・益田鈍翁旧蔵, 가마솥과 가마가 하나로 되어있다. 가마는 신나리형으로 후쿠오카 아시아에서 시작된 신나리형이다. 가마솥: 입 지름:12.7cm, 몸통지름:22cm, 날개지름:23.2cm, 귀 너비:23.5cm 높이:18.5cm(달개꼭지포함)가마(風炉):지름:23.7cm(안지름:22.3cm), 몸통지름:32.5cm, 높이:21.5cm

흑라쿠찻사발(黒楽茶碗), 銘釈迦(寛々斎), 長次郎作, 京都, 桃山16c
素材 黒楽陶製 紀州徳川家, 아즈치모모야마 때 도공인 나가지로(長次郎)가 만들었다. 나가지로와 그 후계자인 라쿠게 집안에서 만든 것을 라쿠차완이라고 한다. 센리큐가 특별히 좋아해서 그의 사상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한다.

와니구치(鰐口), 1590(桃山)滋賀県野洲市・兵主大社

거북웃칠상자(亀甲時絵螺鈿鏡箱, きっこうまきえらでんかがみばこ), 15C.

와니구치(鰐口)는 마갈대어(魔羯大魚, 바다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 모양 짐승)를 나타낸다. 두드러 악마의 움집임을 없앤다는 뜻이다. 주로 절에서 사용된다. 방울(鈴)은 고어습유(古語拾遺)에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 あまてらすおおみかみ)가 천황궁호(天石窟戸, あまてらのはやと)에 숨어있을 때 아메노우즈메(天鈿女命)가 방울을 던 방패를 가지고 춤을 주었다고 적혀있다. 신사에서 쓴다.

室町, 素材, 黒漆塗に濃梨地, 錫縁, 螺鈿, 研出蒔絵, H-2.9 D-8, h: 2.8cm d: 7.7cm, 원형의 작은 손거울 상자이다. 여러 가지 무늬가 웃칠, 나전 따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무늬를 기하학적으로 새겼다. 거울상자이지만 뒤에 향상으로 전용되었다.

여러 가지 차 가마솥, 차도(茶道), <http://verdure.tyanoyu.net/index.html>, 2016.5.18